

인상된 중국 관세 대부분 미국 기업이 떠안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부분 미국 기업이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000억 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따른 충격이 중국보다 미국 기업을 더 크게 강타한 정황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9월1일부터 기존의 관세에서 제외된 3,000억 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강행될 때 발생할 충격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8일 '뉴스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지난 6월 미국이 걷어들인 수입 관세는 60억 달러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는 4월과 5월 각각 48억 달러와 53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국과 무역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6월 관세 수입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이 중국에서 걷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미국 기업에 발생한 비용이다. 대규모 관세에 반대하는 기업 연합체인 '타리프스 허트 더 하트랜드(Tariffs Hurt the Heartland)'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34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같은 기간 수입액이 31% 급감했지만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에 기업들은 허리가 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직접적인 관세 부담 이외에 매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간접적인 타격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시행하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주머니를 털릴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로 정부 수입을 늘리는 한편 기업 생산라인의 미국 이전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국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소프트뱅크, 'USA투데이' 인수 미디어 공룡 탄생 임박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 USA투데이가 재일동포 3세인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의 소프트뱅크 산하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 뉴미디어투자그룹(NEWM)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USA투데이 등 100여 개 출판 매체를 보유한 개닛이 NEWM에 인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수·합병 절차는 규제당국과 양사 주주의 승인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수가는 총 14억 달러에 달한다. 합병으로 탄생할 회사 이름은 '개닛'이 될 예정이며 지분은 NEWM이 50.5%, 개닛이 49.5% 보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닛 주주는 현금과 주식 형태로 한 주당 12.06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병 프리미엄 약 18%가 붙은 셈이라고 NYT는 전했다.

합병 기업인 개닛은 미국 전역에 일간지 260여 개를 발행하고 팜을 포함한 47개 주에 300여 개 주간지를 발행하는 미디어 공룡으로 몸집을 키우게 된다.

USA투데이는 쉬운 문장과 중립적인 논조로 1982년 창간 후 1980~90년대 하루 150만부 이상을 발행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신문이었으나, 스마트폰 보급 이후 구독자가 줄어 현재는 하루 70만부가량을 발행하고 있다. 그간 인쇄 매체 시장 하락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뉴스 제작 부문을 축소해 왔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합병이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신문 산업에서 이른바 '군살 빼기'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IT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전통 언론의 콘텐츠 생산 능력을 결합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는 2013년 워싱턴포스트(WP),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는 2015년 중국 최대 경제지 디이차이징 일보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를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실리콘밸리 IT 기업 세일즈포스닷컴이 시사주간지 타임을 사들였다

경기 침체 공포 금값 치솟고 미국채 연일 급등

미중무역전쟁 등 세계 경제가 잇단 악재에 노출되면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대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유동자금이 금, 국채 등 대안적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날 거래된 금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4% 오른 온스당 1519.6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7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날 금 현물 가격은 1,507.30달러를 찍으며 201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1,500달러를 돌파했다.

금에 이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은 역시 이날 온스당 17.16달러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마켓워치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값은 향후 6개월 내로 온스당 1,600달러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근 선진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채 금리가 낮아진 것은 국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593%까지 떨어져 2016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들어 40bp(1bp=0.01%포인트) 급락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이날 2.123%까지 떨어져 2016년 기록한 사상 최저치(2.089%)에 바짝 다가섰다. 이미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한 독일 국채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다.

이날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5.1bp 하락한 -0.582%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8.4bp 하락한 0.431%로 마감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로즈메리!

부에나 파크 \$66만
방3/화2.5, 건평 약 1,900sf
아늑한 2층집
업그레이드, 높은 천장
HOA \$25

부에나 파크 \$65만
방4/화2.5, 건평 약 2,100sf
깔끔한 2층집
업그레이드
가까운공원, 학교, HOA 25불

부에나 파크 \$45만
방4/화2.5, 건평 약 1,300sf
타운홈, 가격내림
Wood Lamnated 바닥
사핑, 교통편리, HOA260

라미라다 \$65만
방5/화3, 건평 약 1,800sf
넓은 단층집
완전 업그레이드
가까운 쇼핑, 공원, 학교

라미라다 \$62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조용한 단층집
수영장, 편리한교통
파크, 골프장, 식당,

라미라다 \$58만
방3/화2, 건평 약 1,400sf
아늑한 단층집
깔끔한 조경
가까운 공원, 식당

플라센티아 \$57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매력, 깔끔한 단층집
프리웨이 편리
좋은 환경

브레아 \$56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모던한 2층 콘도
편리한 환경
HOA \$370

라하브라 \$60만
방3/화1.5, 건평 약 1,200sf
편리하고
조용한 단층집
리모델링

요바린다 \$62만
방4/화2, 건평 약 1,700sf
멋진 단층집
완전 업그레이드
편리한 프리웨이, HOA \$60

